

남자 수구 우승보다 값진 감격의 1승



15·16위 순위결정전 뉴질랜드 꺾고 첫 승리
12-12 동점 후 승부 던지기에서 5-4로 신승

한국 남자 수구대표팀이 뉴질랜드와 페널티 슈트 아웃까지 가는 접전 끝에 짜릿한 승리를 거뒀다. 대표팀은 23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출전 7경기째만에 그토록 기다리던 값진 1승을 따냈다. 남자 수구대표팀은 이날 오전 8시 광주 시 광산구 남부대학교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15·16위 순위결정전에서 12-12 무승부 후 페널티 슈트 아웃에서 5-4(최종 스코어 17-16)로 이겼다. 이날 경기 초반부터 4라운드 막판까지 동점 상황이 11번이나 이어지는 등 역전, 재역전을 거듭하며 팽팽한 승부가 펼쳐졌

다. 4라운드 1분 30초 선 뉴콤에 골을 내주며 11-12로 패색이 짙던 한국은 경기 종료 32초 전 부주장 권영균의 중거리 슈트 아웃이 터지면서 따라붙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않은 한국은 극적인 동점을 만들며 승부를 페널티 슈트 아웃까지 끌고갔다. 페널티 슈트 아웃은 축구의 승부차기처럼 각 팀별로 5명의 선수를 선발해 상대 팀 골키퍼와 5m 떨어진 지점에서 1대1 승부를 벌이는 방식이다. 1-1로 맞선 상황에서 골키퍼 이진우(한체대)는 상대팀 두번째 키커로 나선 니콜라스 스타코비치가 오른쪽 측면으로 슈트를 할 것으로 예상하고 미리 몸을 날렸다. 이

진우의 예상은 적중했다. 한국은 5명의 선수가 전원 득점에 성공하면서 극적인 페널티 슈트 아웃 승리를 확정했다. 뉴질랜드는 지금까지 6차례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출전해 2007 멜버른 대회(15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최하위(16)를 기록했다. 이번 대표팀은 변호사 3명 등 선수 아마추어 선수로 구성됐다. 한국 남자수구대표팀의 첫 세계대회 출전은 30년 전인 1988 서울 올림픽이다. 개최국 자격으로 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남자수구대표팀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과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할 정도로 수구 강국이

었다. 하지만 한국은 올림픽에서 세계의 높은 벽을 실감했다. 7전 전패를 당하는 동안 106 실점, 득점은 28점에 그쳤고 전체 12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후 1980년 대 말 소련 해체 이후 아시아 수구 최강으로 떠오른 카자흐스탄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 경쟁에서도 밀리기 시작했다. 아시아에서조차 경쟁력을 잃은 대표팀은 아시안게임에서도 메달권에 들지 못했다. 주장 이선욱(경기도청)은 "전지훈련 등을 통해 훈련을 했으면 좀 더 나은 경기를 펼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수구에는 국군체육부대팀이 없어 늘 선수들의 병역문제가 걸림돌이 된다. 현재 대표팀의 80%는 미필자인 후배들을 위해 국군체육부대에 수구 팀이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단=김한영 기자 young@



지난 22일 경영 여자 접영 100m 결승에서 우승을 차지한 캐나다의 마거릿 맥닐 등이 시상대에 올라 투병 중인 동료 선수 아케에 리카코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적은 손바닥을 흔들고 있다.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 제공>

“리카코, 절대 포기하지 마”

백혈병 투병 중인 동료에게 전한 ♥ 세리머니

0.01초의 뜨거운 경쟁 속에서도 따뜻한 우정이 피어난다. 지난 22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여자 접영 100m 시상식이 열렸다. 시상대가 가장 높은 곳에 캐나다의 마거릿 맥닐(19)이 섰다. 리카코(26·스웨덴)와 엠마 매기언(25·호주)은 각각 은메달과 동메달 주인공으로 그 옆에 자리했다. 메달을 목에 건 선수들은 기념 촬영을 위해 나란히 선 뒤, 카메라를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이내 관중석에는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경기장 화면에는 일본 선수들이 비취었고 이들도 감동적인 표정으로 박수를 보냈다. 세 메달리스트 손에는 'RIKAKO ♥ NEVER GIVE UP IKKE ♥(리카코, 절대 포기하지 마)'라는 문구가 쓰여있었다. 아케에 리카코(19)는 2018 자카르타-팔렐방 아시안게임에서 6관왕에 오르며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일본의 간판 수영선수, 지난 2월 백혈병 진단을 받고 투병 중이다. 세스트림의 '응원 메시지 제안'에 두 선수가 흔쾌히 응하면서 시상식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세 사람은 시상대에 오르기 전에는 한

치 양보 없는 승부를 벌인 '적'이었다. 특히 세스트림은 이번 대회에서 여자 접영 100m 4연패를 노렸던 만큼 맥닐과 승마하는 막판 대결을 벌였다. 세스트림은 56초22에 터치패드를 찍었고 그보다 0.39초 앞서 맥닐이 55초83에 레이스를 끝냈다. 세스트림은 대회 4연패라는 대기록을 이루지 못했지만 승부가 끝난 뒤 가까이 맥닐을 축하하고, 리카코를 위한 메시지도 남겼다. 앞서 '3개 종목 4연패'의 꿈을 놓친 케이트 러데키(22·미국)도 치열한 승부 뒤에는 따뜻한 동료의 응원이 있었다. 러데키는 지난 21일 열린 여자 자유형 400m에서 호주 의 아리안 티트머스(19)에 1초21 뒤지면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러데키는 이번 대회를 통해 자유형 400·800·1,500m '3개 종목 4연패'라는 위대한 꿈에 도전했다. 하지만 그의 도전은 실패로 끝났다. 당시 경기가 끝난 뒤 러데키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선수 대기 장소로 이동했다. 인터뷰는 거절했지만 축하 인사는 잊지 않았다. 러데키는 장내 인터뷰를 하던 티트머스의 어깨를 두드리며 새로운 챔피언을 축하해줬다. /특별취재단=김여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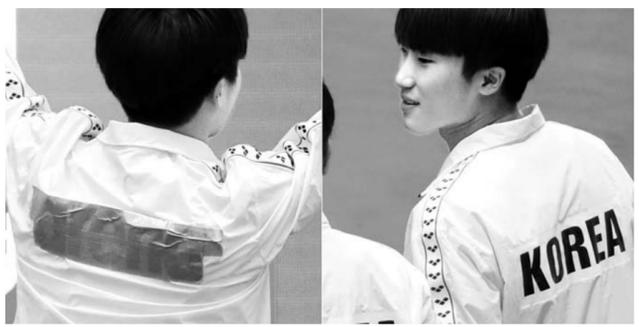
23일 광주 남부대 수구경기장에서 열린 남자 수구경기 한국과 뉴질랜드의 15위·16위 순위 결정전에서 한국이 승부 던지기로 1점차 승리를 거두자 대표팀 선수들과 코치진이 기뻐하고 있다. /특별취재단=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제대로 준비 못 해 죄송합니다”

수영연맹, '유니폼 논란' 사과문 발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제대로 된 용품을 지급하지 못해 논란을 빚은 대한수영연맹이 23일 사과문을 발표했다. 연맹은 2019 국제수영연맹(FINA)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참가한 선수들에게 'KOREA'가 적힌 유니폼이 아니라 브랜드 로고를 테이프로 가린 일반 판매용 유니폼을 지급했다. 비판이 일자 부랴부랴 로고 자리를 천을 덧대고 그 위에 'KOREA'를 새긴 유니폼을 15일 다시 지급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연맹은 개막 후 약 열흘이 흐른 23일 사과문을 발표하고 국민에 머리를 숙였다. 연맹은 “국가대표선수단 용품 지급과 관련하여 물의를 야기한 데 대해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다. 연맹은 지난해 말 A사와 용품 후원 계약이 끝난 뒤 새 후원을 찾는 과정에서 차질을 빚으면서 일반인들에게 판매되는 의류를 급하게 구해 테이프로 로고를 가린 뒤 선수에게 지급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남부대 시립국제수영장에서 열린 남자 1m 스프링보드 결승전에서 테이프로 특정 상표를 가린 상의를 입은 우하람이 입장하고 있다(왼쪽). 국가대표 유니폼에 대한 지적이 제기된 15일 우하람이 임시방편으로 국가명용을 붙인 상의를 입고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다.

오늘의 광주세계수영

- △경영=남자 자유형 100m·남자 개인혼영 200m·여자 접영 200m·혼성 혼계영 400m 예선(10시) 남자 자유형 800m·여자 자유형 200m·남자 접영 200m·남자 평영 50m·혼성 혼계영 400m 결승,
- 남자 자유형 100m·여자 배영 50m·여자 접영 200m·남자 개인혼영 200m 준결승(20시·이상 남부대시립국제수영장)
- △하이드라이빙=남자부 3, 4라운드(12시·조선대 하이드라이빙경기장)

경매

- ▶ 엔피엘(NPL)과 특수물건만 취급
- ▶ 입찰할/낙찰된 경매물건
- ▶ 소유권/근저당으로 채권보장
- ▶ 현금 5억원이상 가능한 분

단독/공동투자 하실분
(주)오천경매,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수수료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NAVER 채권추심 회수왕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시골집 완도군 청산면 대지 440㎡ 주택 52㎡ 조용한생활 최저 4800만원
- 장성군 삼계면 능성리 231㎡ 불부베리 500여주 식재 8500만원
- 무안군 청계면 도림리 680㎡ 목포대학 인근 4600만원
- 담양군 월산면 월계리 추월산 가는 길 2268㎡ 1억5800

투자·매도·교환

- 목포대 인근 무안청계 2중주거지 담 4413㎡ 축평 2억4천 투자에 좋음 4억5천
- 신안군 암태면 부두서 10봉거리 독립 섬 56233㎡ 독립개발적합 3억7천
- 완도군 완도읍 산 자면죽지 3306㎡ 전망좋은 사찰적합 5000만원
- 월산동 다구대지 188㎡ 주택 177㎡ 방 10실 전세 800 월 150 임대 은행 3천 매도 2억6천
- 곡성군 입면 매월리 임야·전 24056㎡ 농장·귀농생활 적합 9천만원
- 남구 월산동 소방도 상가주택 대지 104㎡ 건평 98㎡ 공실임 1억2천
- 함평 손불면 산남리 전 8588㎡ 귀농생활적합 2억6500
- 별장·나주시 다시면 회진리 영산강 부근 땅 450㎡ 건평 110㎡ 3억
- 남구 월산동 월산이파트 부근 조용한 생활적합 664㎡ 2중주택 4억4천

상가건물

- 나주 혁신도시 중심지 3층 193㎡ 분양 4억9천 은행 2억5천 매도·교환 5억
- 대인동 버스도도 땅 709㎡ 건평 810㎡ 사육 등 적합 공시지가 13억7천 매도 26억
- 두암동 버스도도 5층건물 대지 301㎡ 건평 997㎡ 임대생활적합 8억2천
- 농성동 새 원룸건물 대지 343㎡ 건평 712㎡ 1층 가게는 공실 17억
- 월산4동 주민센터부근 도로코너 땅 227㎡ 상가주택 357㎡ 매도 5억8천

특급물건

- 신안 암태면 천사대교에서 15분 53397㎡ 중 계획관리지역 70%선 다용도 개발 5억6천
- 나주시 남내동 상업지 959㎡ 다용도 개발 적합 은행 3억5천 매도 13억
- 광산구 덕림동 계획관리지역중심 29144㎡ 다용도 투자에도 양호 10억8천
- 담양군 월산면 월평리 전원주택단지 적합 27215㎡ 광주시 30봉거리 13억2천
- 나주시 금천면 영산강부근 땅 26334㎡ 전원주택형 빌라 등 적합 29억
- 영암군 학산면 영산강점 산 97404㎡ 감정 8억4천선 하자 5억8천 매도 3천
- 나주시 다시면 광목간도로 4323㎡ 유통시설·창고 등 적합 6억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앞문앞

임야

문중산/지분물건 환영
바로합니다. 010-6834-7400

장성토지매매!!

- 4층규모 APT 50채 건축부지 (평탄작업 완료)
- 지 번 : 장성군 장성읍 안평리 648-1, 2 및 38전
- 면 적 : 3,646㎡ (1,104평) 읍에서 5분거리
- 환 경
좌측 : 5m 이격 편백숲, 품의 산책길·오솔길
우측 : 대형블루베리농장·환상의 캠핑장·맛집
- 감정가 : 8.8억 (평당 80만원)
- 매매가 : 7.7억여원 (평당 70만원)
- 상·하수도, 도시가스 인입 가능

문 의 010-3602-3881(주인)